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찬술 점검을 겸하여

Abyss of tree peony, Queen Seondeok and sperm donors : In addition to verify whether Seolchong() was the author of Hwawanggye()

저자 (Authors)	김태식 Kim, Tae-shik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30), 2014.4, 251-299(49 pages) SILLASAHAKPO (30) , 2014.4, 251-299(49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362
APA Style	김태식 (2014).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신라사학보(30), 251-29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 화관 183.106.106.*** 2021/03/26 10:0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花王戒’ 薛聰 찬술 점검을 곁하여-

김 태 식**

- | | |
|---------------------|--------------------------|
| I. 聖骨의 女主 | V. 백제, 고구려, 그리고 일본열도 |
| II. 德曼과 天明, 그리고 金春秋 | 에도 없는 모란 |
| III. 牡丹과 조우한 聖祖皇姑 | VI. 역사의 오발탄 ‘모란 외교’ |
| IV. 中原을 몰아치는 모란 열풍 | VII. 세 남자를 거느린 여왕 |
| | VIII. 또 다른 역사의 오발탄 ‘花王戒’ |

* 이 글은 2012년 6월 16일 서강대 정하상관 610호에서 열린 신라사학회 제115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중 일부 문구를 손질하는 수준에서 보완한 것이다.

** 연합뉴스 문화부 문화재 전문기자

주요 논저 :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김영사, 2000 ; 《화랑 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1 ; <김유신의 入山修道와 그의 龍華香徒> 《韓國古代史探究》 13, 2013 ; <한일간 문화재 반환, 우리를 반추한다> 《일본공간》 8,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0 ; <百濟武寧王陵의 ‘登冠大墓’ 再考 -동시대 中國과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CHINA연구》 7,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09 외 다수.

【국문초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 태종 이세민은 모란 그림과 함께 진평왕에게 모란씨를 보냈다. 한데 이 그림을 본 진평왕의 딸이자 나중에는 그를 이어 신라 제27대 왕이 되는 선덕은 그 씨를 심어 핀 꽃은 향기가 없을 것임을 미리 알았으며, 실제로 그리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선덕은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음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우리는 진평왕 시대에 과연 중국에서 모란씨를 보낼 수 있었을까를 검토한 결과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낸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국사에서 볼 때 모란이 당 황제에게 알려지고, 더구나 당 제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모란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진평왕 시대보다 무려 100년이나 뒤지는 서기 750년 무렵 이후,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730년 이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모란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모란은 중국 대륙 북부 사막지역에서 이 무렵에 들어왔으며, 더구나 그런 모란이 광적인 열풍을 일으킨 것은 더욱 엄밀히는 서기 800년 이후다. 따라서 진평왕 시대에 당나라에서 신라에 모란씨를 선물로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당 태종이 신라 진평왕에게 막상 심어서 향기가 없는 꽃을 피우게 되는 모란씨를 보냈다는 기록을 간단히 거짓이라 치부할 수 있겠는가? 이번 논문은 더 나아가 이 점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 결과 모란 전래 관련 기록이 실은 진평왕과 선덕여왕 시대 신라의 정치적 사건의 은유임을 주장한다. 당에서 보내온 모란씨를 심었더니 각기 다른 세 가지 색깔의 꽃이 피었지만 향기가 없다는 것은 바로 진평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선덕왕이 자기 왕위를 이을 왕자를 낳지 못한 역사적 사건의 은유였다. 최근에 새로 출현한 신라사 관련 문헌을 보면 실제로 선덕여왕은 왕위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물려줄 아들을 생산하기 위해 남자 세 명을 들였으나, 모두 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모란에 대한 이런 문화사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는 모란과 관련되는 저명한 ‘花王戒’라는 이야기에서 말하는 花王 또한 모란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화왕계란 신라 신문왕(재위 681~692) 때 설총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로서 花王, 다시 말해 꽃의 왕인 모란을 의인화한 소설의 일종이다. 우리는 모란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런 소설이 신문왕 시대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앞서 밝혔듯이 모란이 꽃의 제왕이 된 시기는 신문왕 시대보다 적어도 반세기 가량이나 지난 뒤이기 때문이다. 모

란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화왕계라는 소설이 신문왕 시대에 나올 수는 없다.

주제어 : 모란, 진평왕, 선덕여왕, 당 태종, 씨내리, 화왕계, 설총

꽃은 두루 보았지만 이보다 나은 꽃 없네
구름 오리고 눈을 펼쳐 丹砂 담근 듯하네
看徧花無勝此花
翦雲披雪蘸丹砂¹⁾

I. 聖骨의 女主

신라의 스물일곱 번째 王은 즉위하기 전 이름인 諱가 德曼(曼一作萬), 즉위한 뒤에 얻은 또 다른 이름인 尊號가 善德이다. 서기 632년 봄 정월, 장장 54년간 왕좌에 군림한 아버지 眞平이 죽자 公主와 聖骨이라는 지위와 신분으로 왕위에 올라 다스리다가 재위 16년째인 647년 봄 정월 8일, 毗曇과 廉宗의 반란이라는 어수선한 정국의 와중에 죽어 狼山에 묻히니, 이곳은 지금의 경주 四天王寺 터가 자리 잡은 작은 산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공히 善德이 諡號라고 하지만 존호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하지만 善德이 시호이기도 하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도 없으니, 죽은 다음에는 죽 이 이름으로 일컬었기 때문이다. 존호와 시호의 일치는 太宗武烈王 金春秋 이전 신라 中代 왕실에서는 관례였으며, 이것이 동시대 중국의 존호-시호 시스템과는 확연

1) 徐夔 ‘牡丹花二首’ 중 제1首.

히 다른 대목이다.

善德의 품성을 일러 《삼국사기》 그의 本紀 즉위년(632) 條에서는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총명하고 민첩하다”(性寬仁明敏)고 묘사한다. 비록 공주이긴 하지만 그 이전 한국이나 중국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여성으로서 왕이 된 원인을 《삼국사기》에서는 이런 품성 평가와 더불어 “(진평)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國人들이 德萬을 왕으로 세웠다”는 정도로 언급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의 계승을 충분히 납득할 수는 없다. 외려 이와 관련해서는 《삼국유사》에서 그 실마리를 구할 수 있으니, 그 王曆 편에서 이르기를 “聖骨男盡”, 즉, 신분이 성골로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씨가 마르므로 그가 즉위했다는 기술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德曼이 왕위를 이어야 할(혹은 이을 수 있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성골 남자의 씨가 眞平王을 끝으로 신라사회에서 말랐다 해서 그의 공주인 德萬이 반드시 왕위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骨品制로 표현하는 신라사회의 신분제에서 聖骨만이 王位를 독점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지 않거니와, 그런 까닭에 이 신분에 속하는 구성원은 官等を 초월해 군림한다. 그에 견주어 眞骨은 臣位를 독점했다.²⁾ 그렇지만 모든 관위를 초월하고 王位를 독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신분, 즉, 진골에 견주어 자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³⁾ 무엇이 聖骨의 자격을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
- 2) ‘독점’이라는 말을 모든 관직을 眞骨이 차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7官位로 分界한 신라의 관직 체계에서 진골은 모든 관위를 지닐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독점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 3) 그런 점에서 신라의 신분제를 ‘骨品制’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骨品’은 글자 그대로 骨의 품계이니, 골이란 聖骨과 眞骨 두 가지만 한정할 뿐이며, 6頭品 이하 頭品은 결코 포괄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골품이란 王位와 臣位の 구분선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

여전히 신라사학계에서는 논란이 첨예하지만,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장황히 논할 여유나 이유는 없다.⁴⁾ 다만, 그 엄격한 제한이 결국은 그 種子까지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할 수 있으니, 眞平王의 죽음을 끝으로 ‘聖骨男盡’은 저간의 사정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라 신분제에서 聖骨과 眞骨은 비단 남성에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니, 여성 또한 聖骨일 수도 있고 眞骨일 수도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德曼이 진평왕의 공주로서 왕위를 계승한 원인을 비교적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평왕을 끝으로 신라사회에서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만한 남자는 종적을 감춘 데 비해, 德萬은 여성이지만 聖骨 신분이기 때문에 왕좌에 오른 셈이 된다.

신라사에서 聖骨王 시대는 善德을 거쳐 眞德에게로 한 명이 더 연장한다. 하지만 이는 성골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생명 연장에 지나지 않았다. 즉위 전 이름이 勝曼인 眞德은 진평왕의 母弟인 國飯葛文王의 딸이다. 재위 8년 만인 654년 봄 3월에 그마저 죽고 金春秋가 왕위를 이으니, 이때에 이르러 신라는 眞骨王 시대를 개막한다. 《삼국사기》 眞德王本紀에서는 진덕의 죽음을 전하면서 이르기를 “시조 혁거세로부터 진덕왕까지의 28왕을 일컬어 聖骨이라 하고, 武烈王부터 마지막 왕까지를 일컬어 眞骨이라 한다”⁵⁾고 했다. 이런 언급을 통해 우리는 善德과 眞德의 두 여왕이 성골로 왕위를 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眞平王이 신라사의 마지막 聖骨男이었듯이, 善德과 眞德은 신라사의 마지막 聖骨女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신라사에서 성

영사, 2001, 392~414쪽.

4) 소위 신라 골품제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종욱, 《신라골품제연구》, 일조각, 1999가 이를 둘러싼 제반 문제 전반을 집대성했다고 본다.
 5)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自武烈至末王, 謂之眞骨.

곧은 眞德을 끝으로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II. 德曼과 天明, 그리고 金春秋

왕위를 이어줄 아들을 두지 못한 진평왕에서 비롯되어 선덕을 거쳐 眞德에 이르는 왕위 계승을 대별할 때 드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왜 선덕이 죽자 왕위는 그의 후사로 가지 못하고 현대 한국의 항렬 개념으로는 사촌 여동생인 眞德에게로 갔느냐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것을 궁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인 牡丹을 마주하게 된다. 그에 앞서 善德을 둘러싼 또 다른 의문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善德이 진평왕에게 어떠한 딸이나 하는 점이다.

우선 善德이 聖骨이었고, 아버지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그가 正妃의 소생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런 그를 일러 《삼국사기》 善德王本紀 즉위년 條에서는 “眞平王 長女”라고 했다. 이는 몇 가지 생각할 점을 던져준다. 진평왕의 長女라고 했으면 당연히 次女가 있었다는 뜻이며, 그 외에도 三女, 四女, 혹은 더 많은 여동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오직 우리는 天明이라는 이름 하나만을 검출할 뿐이다.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으로는 오직 天明만을 찾는다.

그렇다면 천명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삼국사기》 太宗武烈王本紀 즉위년(654) 조에 김춘추는 “어미가 天明夫人이니 眞平王의 딸”(母天明夫人 眞平王女)이라 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언급은 《삼국유사》에서도 보이니, 먼저 그 王曆 편에서는 김춘추가 “어미는 天明夫人으로 시호는 文貞太后이니, 진평왕의 딸”(母天明夫人, 諡文貞太后)⁶⁾이라 하고, 이어 紀異 편 ‘太宗春秋公’

조에서는 “어미는 眞平大王의 딸 天明夫人”(母眞平大王之女天明夫人)이라 했다. 이로써 보건대 天明은 善德과는 아버지가 같은 眞平王이다. 더불어 어머니는 다를 수 있지만, 善德이 正妃 소생인 嫡女였음이 확실하며, 天明 또한 그 자신은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金春秋가 나중에 王位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그 역시 正妃 소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善德과 天明은 同父同母의 자매였음에는 이렇다 할만 한 의문부호를 달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둘은 관계는 어떠한가? 다시 말해 누가 언니이며 동생인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이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오직 한군데 있을 뿐이다. 그것은 德曼을 일러 “진평왕의 長女”라고 한 《삼국사기》 그의 본기가 있을 뿐이다. 이를 그대로 따르다면 德曼이 언니, 天明은 동생인 셈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런 언급이 도대체 없다. 즉, 그의 계보와 관련해 이곳에서는 王曆 편과 紀異 편 두 군데서 보이지만 “眞平王(之)女”라고 할 뿐, 장녀라는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진평왕에게 嫡女는 德曼뿐만 아니라 天明이 더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은 새로운 의문 부호를 더하는 대목이 있다. 첫째, 왜 王位는 天明이 아닌 德曼에게 갔느냐가 그것이며, 둘째, 후사가 없이 죽은 善德王 사후 天明 혹은 그의 後嗣가 왜 곧바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사촌인 眞德에게 갔느냐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德曼이 언니이며, 동생 天明이 언니보다 일찍, 그것도 이왕이면 아버지 眞平이 죽기 전에 죽었다고 보면 이런 의문은 비교적 수월하게 풀린

6) 근자에 연세대박물관이 공개한 고려말 혹은 조선초기 판본인 파른본(손보기본) 王曆篇에는 ‘文貞’이 ‘文眞’으로 나온다. 김태식, <삼국유사에서의 王曆의 위치와 파른본 삼국유사 王曆의 가치> 《신라사학보》 28, 2013.

다. 하지만 그럴 것이라는 것과 그렇다는 말은 번갯불과 반딧불의 간극만큼이나 크다. 정말로 그러했는지는 따로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 설혹 天明이 德曼에게는 동생이고, 언니보다 일찍 죽어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언니와는 달리 천명은 엄연히 眞智王의 아들인 龍樹(혹은 龍春)와의 사이에서 김춘추라는 嫡子를 두었다는 점도 새삼 고려해야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金春秋의 生年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아들 文武王 金法敏의 碑 破편을 통해 그의 출생 연도는 진평왕 26년(604)임을 알 수 있다. 天明은 적어도 이 무렵까지 생존하면서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나아가 진평왕이 薨할 당시(632년) 金春秋는 이미 19세였으며, 善德王이 죽었을 때는 이미 서른다섯 장성한 중년이였다. 그럼에도 김춘추는 善德과 眞德을 거쳐 聖骨이 씨가 마를 때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실로 의아함을 증폭시키는 대목은 왜 金春秋는 신분이 성골이 아닌 眞骨이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의 할아버지 眞智王의 석연찮은 廢位 과정을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지왕이 荒淫無道하다 해서 폐위됐으므로 이 과정에서 그 자신, 혹은 그의 아들 龍樹(혹은 龍春) 또한 진골로 한계단 신분이 族降했을 것이라는 볼 수도 있으며 실제 이와 같은 해석은 학계에서는 이론이 없다 할 정도로 통용되는 실정이다. 그 사정이야 어떻든 진지왕의 아들로써 진평왕의 딸 天明과의 사이에서 김춘추를 낳은 龍樹(혹은 龍春)가 어느 순간 진골로 族降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聖骨은 관위를 초월한다 했거니와, 龍樹(혹은 龍春)은 엄연히 여러 官位를 거치는 형적이 기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眞智王의 폐위와 그에 따랐을지 모를 그 후손의 族降과 天明의 신분은 왕칭 다른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 진지왕 후손들이 진골

로 족강되었다 해서 그 후손과 혼인한 天明은 적어도 여러 기록을 종합할 때 聖骨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聖骨女와 眞骨男 사이에서 난 後嗣가 자동으로 신분상으로 眞骨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는 있는 바는 아무 것도 없다. 이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

Ⅲ. 牡丹과 조우한 聖祖皇姑

아무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여러 곡절은 뒤로하고 德曼은 왕위를 계승했다. 그의 신분이 아무리 聖骨이라 해도 이런 왕위 계승 과정에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을 것이니,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의 죽음에 즈음해 일어난 毗曇과 廉宗의 반란을 들 수 있다. 《삼국사기》 그의 본기 16년(647) 조에는 “春 正月에 毗曇과 廉宗 등이 ‘女主는 정사를 잘 펼칠 수 없다’고 해서 謀叛하여 擧兵했다”⁷⁾고 했다. 女主의 등장과 또 다른 女主의 등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德曼은 성격이 “寬仁明敏”하다는 후세의 평가를 얻었으며, 즉위 직후에는 ‘聖祖皇姑’라는 존호까지 얻게 된다. 이런 언급은 《新唐書》 권220 新羅傳을 필두로 《삼국사기》 그의 본기 즉위년 조에 보인다. 《삼국사기》를 보면 “(진평)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德曼을 왕으로 세우고 ‘聖祖皇姑’라는 칭호를 올렸다”⁸⁾고 했다. 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성스러운 임금 큰 할머니”⁹⁾라는 해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명쾌한 분석이 없다. 이와 관련한

7) 春正月, 毗曇·廉宗等謂 ‘女主不能善理’, 因謀叛擧兵.

8) 王薨無子, 國人立德曼, 上號聖祖皇姑.

9) 정구복외, 《譯註 三國史記3 주석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40쪽.

後日의 專稿를 기약해 본다.¹⁰⁾ 그런 다음 善德王本紀는 곧바로 오늘 의 주제인 모란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술로 넘어간다.

前王(진평왕-인용자) 때 唐에서 가져온 모란꽃 그림과 그 꽃씨를 德曼에게 보이니 덕만이 말하기를 “이 꽃이 비록 지극히 요염하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고 했다. 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는 까닭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무릇 여자에게 國色이 있으면 남자들이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꽃은 무척 아름다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향기가 없는 꽃임에 틀림없습니다”고 했다. 그것을 심었더니 과연 말한 바와 같았으니 미리 알아보는 식견이 이와 같았다.¹¹⁾

이는 인용 구절 마지막에 보이듯이 德曼의 ‘先識’, 즉, 미리 알아맞히는 능력이 비상함을 입증하는 사례로 든 것이다. 이와 흡사한 기술이 《삼국유사》 紀異篇에는 ‘善德王知幾三事’라는 題下의 일화 중

10) ‘聖祖皇姑’라는 말은 祖姑라는 말이 핵심이며, 聖과 皇은 결국 동의어 반복으로서 이를 수식하는 형용사다. 이 중에서도 姑라는 말은 그 대상이 첫째 여성이며, 둘째 연령대로 보아서는 적어도 중년 이상, 아마도 노년에 이른 경우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도 좋다. 아울러 姑가 道教에서는 女仙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한다는 점도 주시할 대상이다. 더불어 글자 그대로는 성스러운 조상 정도를 의미하는 ‘聖祖’ 또한 반드시 남성에만 국한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雲笈七籤》에 인용한 《墉城集仙錄》이 수록한 女仙 중 한 명인 唐代 여도사 緜仙姑가 한 말로 “西王母姓緜，乃姑之聖祖也”(밑줄 강조는 인용자-이하 같음)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西王母를 聖祖로 거론한다. 아울러 여선 이름이 緜仙姑임을 주목하라.

11) 前王時，得自唐來牡丹花圖并花子，以示德曼，德曼曰“此花雖絕艷，必是無香氣。”王笑曰，“爾何以知之?”. 對曰，“畫花而無蝶，故知之. 大抵女有國色，男隨之，花有香氣，蜂蝶隨之故也. 此花絕艷，而圖畫又無蜂蝶，是必無香花.”. 種植之，果如所言，其先識如此.

하나로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唐太宗(李世民·인용자)이 모란을 세 가지 색깔, 즉, 紅·紫·白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씨앗[實] 3升을 보내왔다. (선덕)王이 꽃 그림을 보고 말하기를 “이 꽃은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命하여 뜰에다가 (그 씨를) 심게 했다가 그것이 피고 지기를 기다렸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이로써 大王이 靈聖함을 (群臣이) 알게 되었다. 當時에 群臣이 王께 아뢰기를 “어떻게 (모란) 꽃과 개구리 두 사건을 그렇게 될 것을 아셨습니까?”라고 하니 王이 말하기를 “꽃을 그렸으되 나비가 없으니 거기에 향기가 없음을 알았다. 이는 곧 唐帝가 寡人에게 배필[耦]이 없음을 놀린 것이다. …” 이에 群臣이 모두 그의 聖智에 감복했다. (모란)꽃 三色을 보낸 것은 아마도 新羅에 세 여왕이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善德 眞德 眞聖이 그들이니 唐帝도 懸解의 명석함이 있었다.¹²⁾

그 골격이 같다는 점에서 같은 내용 혹은 사건을 이야기함이 명백하지만 이 둘을 비교하면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된다. 그 相似함과 相異함을 나열해 본다. 우선 선덕여왕의 예지력을 표현하는 말이 ‘先識’(사기)와 ‘知幾’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幾’가 일의 ‘김새’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은 말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 둘째, 그 주인공이 같지만 시대 배경이 다르다. 즉, 《삼국사기》에서는 이 이야기가 ‘前王時’라 해서 진평왕 재위 시대라고 하는데 견주어, 《삼국유사》에서는 이 일이 德曼이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로 보았다. 전자라면 善德이 공주 시절, 그러니까 德曼으로 불리던 시절이 된다.

이와 관련해 조선 초기에 나온 편년체 사서인 《三國史節要》의

12) 唐太宗送畫牧丹三色紅紫白，以其實三升，王見畫花曰：“此花定無香。”仍命種於庭，待其開落，果如其言。…乃知大王之靈聖也。當時群臣啓於王曰：“何知花蛙二事之然乎？”王曰：“畫花而無蝶，知其無香。斯乃唐帝欺寡人之無耦也。…”於是，群臣皆服其聖智。送花三色者，蓋知新羅有三女王而然耶？謂善德眞德眞聖是也，唐帝以有懸解之明。

해당 사항 언급은 비상한 주목을 요한다. 즉, 이곳 제8권 唐 貞觀 6년 (신라 진평왕 54년, 선덕왕 원년. 632) 조에서는 신라왕 伯淨(진평왕)의 죽음과 그에 따른 善德女王的 즉위 사실을 전하면서 본문에서는 《삼국사기》의 해당 기술을 그대로 전제하고 난 다음에 夾註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추가했다.

《殊異傳》에는 다음과 같다. 당 태종이 牡丹의 종자와 모란꽃 그림을 보내왔는데 선덕왕이 그림을 보고 웃으면서 좌우에 말하기를 “이 꽃이 요염하고 부귀의 氣像이 있어 비록 花王이라 칭하지만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唐帝가 이를 보내 온 것은 어찌 내가 여인으로서 왕이 된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역시 隱微한 뜻이 담겼다”고 했다. 그 종자를 심어 꽃이 피기를 기다렸는데 과연 향기가 없었다.¹³⁾

《삼국사절요》 찬자들이 이를 협주로 인용한 까닭은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시대 배경이 선덕이 공주인 시절을 배경으로 삼는 《삼국사기》를 전제한 본문과는 달리 《殊異傳》은 선덕이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로 묘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대 배경으로만 본다면 《삼국유사》가 저록한 모란 이야기는 《殊異傳》 계열 이야기와 상통하는 셈이다. 덧붙여 《삼국사절요》 편찬 직후에 그 연장선에서 나온 같은 편년체 사서인 《東國通鑑》에서는 《殊異傳》 관련 인용이 전연 없는 반면, 본문에서는 《삼국사기》의 그것을 전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唐帝 李世民이 신라에 보낸 품목 내역은 《삼국유사》 쪽이 더욱 상세하다는 점이다. 즉, 《삼국사기》 쪽이 모란꽃 그림과 그 꽃

13) 殊異傳: 唐太宗以牧丹子, 并畫花遺之, 王見花笑謂左右曰: “此花妖艷富貴, 雖號花王, 畫無蜂蝶, 必不香.” 帝遺此, 豈朕以女人爲王耶, 亦有微意, 種待花發, 果不香.

씨를 보냈다고 한 데 견주어 《삼국유사》에서는 모란꽃 그림에 등장하는 꽃 색깔이 紅과 紫와 白의 세 가지이며 그 씨앗[實] 3升을 첨부했다고 묘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네 번째로 지적할 만한 내용은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삼국사기》에서는 모란꽃 그림에 나비가 없음을 보고 그 종자를 심으면 향기가 없는 꽃을 피울 것임을 알아낼 만큼 선덕의 叡智가 뛰었다고 강조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이런 꽃 그림과 꽃씨를 唐帝가 보낸 이유를 선덕이 그 자신에게 배필이 없음을 기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는 점이 다르다. 덧붙여 《삼국유사》에서 唐帝가 꽃 三色을 보낸 이유가 아마도 新羅에 세 여왕이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삼국유사》 찬자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삼국사절요》가 인용한 《殊異傳》 관련 기록에서는 당제가 모란꽃 그림과 그 씨앗을 보낸 것은 선덕이 여인으로서 왕이 된 사실을 은유한 것으로 본다.

다섯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殊異傳》을 관통하는 모란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허영’ 정도를 대변하는 이미지로 정리할 수 있다. 모란의 이런 이미지는 현대의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그것과 그다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모란은 요컨대 꽃 중의 은일자인 국화, 꽃 중의 군자인 연꽃에 대비하면서 “꽃 중의 부귀한 자”¹⁴⁾라는 저 유명한 북송시대 지식인 濂溪 周敦頤(1017~1073)의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란이라면 대뜸 떠오르는 이미지인 부귀나 화려함은 그 강렬하면서 화려한 꽃의 색채에서 연동한 발상이라 하겠지만, 이들 善德에 얽힌 이야기가 한결 같이 그 화려함의 이면에 감춘 실속 없음을 ‘無香’이라는 모란꽃의 속성에 주목해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화려

14) 愛蓮說: 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 花之君子者也.

함에 대비되어 모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中唐의 지식인 白居易에게서도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여섯째, 색채가 화려하다는 점에서 모란이 ‘國色’에 비유되기도 한다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이는 《삼국사기》 관련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서 공주 善德은 “무릇 여자에게 國色이 있으면 남자들이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한다. 모란 자체를 직접 國色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모란에서 國色을 읽어내려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성별로는 모란이 여성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취한다. 여성으로서의 모란은 唐帝가 모란꽃 그림과 그 씨를 보낸 이유가 여인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삼국유사》 이야기에서도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일곱 번째, 화려한 빛깔에 견주어 모란의 ‘無香’ 혹은 ‘不香’이 실제 여성에 비겨서는 이른바 ‘생산력 부재’로 결부된다는 점도 확인한다. “唐帝가 寡人에게 배필[耦]이 없음을 놀린 것”이라는 《삼국유사》 쪽 말은 이런 측면을 응변한다. 이로 미루어 唐帝가 보낸 모란 씨를 뿌려 심었더니 화려하게 꽃은 피웠지만 그 꽃이 ‘無香’ 혹은 ‘不香’이었다는 말은 선덕에게는 마땅한 배필이 없어 후사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말의 은유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실제 역사를 보아도 善德은 후사를 생산하지 못해 그가 죽자 왕위는 사촌동생 眞德에게로 간다.

IV. 中原을 몰아치는 모란 열풍¹⁵⁾

꽃이 피고지는 스무날 花開花落二十日
 성안 사람 모두 미친듯 一城之人皆若狂

中唐의 문단을 주름잡은 樂天 白居易(772~846)가 이렇게 읊은 꽃은 모란이다. 제목이 ‘모란의 향기’(牡丹芳)인 이 시는 ‘新樂府’라 칭하는 백거이 연작 50수 중 28번째 작품. 新樂府는 공교롭게도 생년과 몰년이 모두 같은 친구 李紳의 20수 연작인 ‘新題樂府’에 화답한 결과물로 그것이 나온 때는 元和 9년(809)이다.¹⁶⁾ 이 ‘牡丹芳’은 모란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다. 백거이 스스로는 “천자의 농사에 대한 근심을 찬미한 것이다”(美天子憂農也)고 했다. 다시 말해 모란이 피고 지는 스무날 그 도읍 長安 사람들이 온통 모란에만 정신이 팔려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백거이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元和 연간(806~820) 모란 열풍이 어떠했는지 같은 시에서 “햇볕 쬐면 시들까 모두들 염려하니, 그리하여 장막 쳐 그늘 드리우네”(共愁日照芳難駐, 仍張帷幕垂陰涼)라고 할 정도였다. 다시 말해 모란은 워낙 순식간에 피어서 빨리 저버리니 되도록 오래도록 만개한 꽃을 감상하고자 인공 그늘을 만들기가

15) 이 챕터는 필자가 속한 학술문화운동단체 ‘文文’ 회원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다. 박헌순 기호철 권경열 홍승직 홍상훈 신현철 김진석 송미경 정훈진 선생 등의 도움이 특히 컸다. 더불어 이시다 미키노스케 지음, 이동철 박은희 옮김 《장안의 봄》(이산, 2004) 중에서도 1장 2절 ‘장안의 모란 열풍’(21~32쪽)과 그에 해당하는 각종 풍부한 註釋에서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다.

16) 김철수 역주, 《백거이의 新樂府 50수와 秦中吟 10수》, 백산출판사, 2007, 14쪽.

지 한 것이다.

모란의 광풍은 백거이 자신의 서문에 의하면 “貞元和 元和 연간에” “장안에 머물면서 보고 듣는 사이에 슬퍼할 만한 것이 있으면 즉시 그 일을 노래로 만들어” 완성했다는 또 다른 10부작 연작시 ‘秦中吟并序’의 마지막 작품 ‘꽃을 사서’(買花)에서도 반복한다.

장안성 봄이 저물려는 무렵	帝城春欲暮
떠들썩 수레와 말 지나가며	喧喧車馬度
모두들 모란꽃 시절이라 하며	共道牡丹時
서로서로 꽃 사러간다네	相隨買花去

나아가 만개한 꽃이 시들지 말라며 “위로는 장막 쳐서 막아주고, 곁에는 올라리 엮어 보호해 주”(上張幄幕庇, 旁織笆籬護)는가 하면, “물 주고 흙 뿌려 돌아주니 옮겨 심어도 빛깔을 그대로”(水灑復泥封, 移來色如故) 유지할 수 있었다 한다. 이는 新樂府의 ‘牡丹芳’에서도 확인한 대목이다. 더불어 백거이는 이 시에서 모란에 탐닉하며 賞春하는 전통이 “집집마다 이제는 풍속이 되어 사람마다 미혹되어 깨어나지 못하네”(家家習爲俗, 人人迷不悟)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로써 보면 백거이 자신은 牡丹에 대한 혐오 비슷한 감정이 있을 듯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의 다른 작품에 ‘惜牡丹花’가 있으니, 이는 섬돌 앞에 핀 紅牡丹 꽃잎이 해질녘에 두 줄기만 남았음을 아쉬워하면서 “내일 아침 바람 일면 그나마 지고말리니, 지는 꽃 아쉬워 밤에 등불잡고 들여다 볼”(明朝風起應吹盡, 夜惜衰紅把火看) 정도였다.

백거이가 말하는 모란 열풍은 동시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확인한다. 우선 《全唐詩》 卷505에는 王叡의 작품으로 수록된 ‘牡丹’을 들 수 있으니,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지만 元和 연간에 활약한 그가 읊기를 “모란은 요염하여 사람 마음 산란케 하니 온 나라가 미친 듯 황금도 아끼지 않네”(牡丹妖豔亂人心，一國如狂不惜金)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元和 연간 사람으로 정확한 생물연대 역시 알 수 없는 徐凝에게는 모란을 소재 혹은 주제로 한 시 여러 편이 현전하거나와 그 중 ‘寄白司馬’(전당시 권474)에는 “도성 도로 곳곳에 꽃피는 시절, 만 가구 천 대 수레가 모란을 보네”(三條九陌花時節，萬戶千車看牡丹)라고 노래했는가 하면 ‘牡丹’(같은 권)이라는 시에서는

누군들 모란꽃 사랑하지 않으리오	何人不愛牡丹花
성중에서 아름다움 독차지 하니	占斷城中好物華
낙수 여신이 빚어놓은 듯	疑是洛川神女作
천만 요염한 자태 아침놀 깨뜨리네	千妖萬態破朝霞

라고 읊기도 했다.

白居易와 같은 해에 태어난 劉禹錫(772~842) 또한 모란을 소재로 한 ‘賞牡丹’이라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뜰앞 작약 요염하다지만 품위없고	庭前芍藥妖無格
연못 부용 깨끗하나 다정함 적네	池上芙蓉淨少情
오직 모란만이 참으로 國色 있어	唯有牡丹真國色
꽃필 무렵이면 서울이 술렁이네	開花時節動京城

모란꽃이 필 무렵이면 장안 전체가 들썩였음을 증언한다. 이렇게 京城을 흔들어 대니 나라를 흔들어 댈 만한 國色이라 부른 것이리라.

나아가 생졸년 미상이지만 貞元 이래 元和, 長慶, 大和 연간을 거쳐 開成 元年 무렵에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李肇의 《唐國史補》 卷中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京城에서는 나들이를 귀히 여기고 모란을 숭상한지가 30여 년이다. 매년 봄이 저물 무렵이면 거마가 미친 듯 달리면서 (모란을) 감상하지 못함을 수척로 여겼다. 집금오가 관할 밖 절과 도관에까지 두루 이를 심어 이익을 구하니 한 그루 값이 수만 금에 이르렀다. 元和 말년에 韓令이 처음으로 장안에 이르렀는데 집에 모란이 있어 급히 그것을 베어버리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아녀자를 본받겠는가?”라고 했다.¹⁷⁾

여기서 말하는 韓令은 韓弘이다. 지금의 河南省 長垣 서남쪽인 匡城 사람으로 德宗 때 宣武軍節度使에 임명되었고 吳元濟를 평정한 공으로 侍中을 겸하게 되었고 許國公에 봉해졌다. 元和 14년(819)에 입조를 자청해 司徒와 中書令에 임명되었다. 사람됨이 장중하고 과묵하나 지략과 단호함 때문에 사람들은 韓令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런 그가 元和 연간(806~820) 말기에 장안에 처음으로 와서 마련한 저택에 있는 모란을 뽑아버리면서 했다는 말은 당시의 모란 감상 풍조가 주로 어린이와 여성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듯한 어감이지만 그렇지 않았음은 동시대 다른 증언이 충분히 입증한다고 본다.

《당국사보》 위 언급에서 주시할 대목은 중국, 더욱 정확히는 長安에서의 모란 열풍이 30여 년 전에 시작됐다는 언급이다. 다만, 아쉽게도 30여 년 전의 기점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韓愈가 장안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780~790년 대 무렵이 될 듯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모란 열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論及한 다른 기록을 보면, 대략 그 추정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와 관련해 段成式(773-863)이 찬한 필기소설류인 《酉陽雜俎》 중 前集 卷19 ‘廣動植類之四’ 草篇에서 ‘牡丹’이라는 항목에서 정리한 다양한 이야기는 모란 열풍이 시

17) 京城貴遊，尙牡丹三十餘年矣。每春暮，車馬若狂，以不耽玩爲恥。執金吾鋪官園外寺觀種以求利，一本有直數萬者。元和末，韓令始至長安，居第有之，遽令斫去，曰：“吾豈效兒女子耶?”

작된 단서를 추적할 만한 언급들이 있어 주목을 끈다. 이에서 단성식은 먼저 “모란은 前史에서는 언급한 곳이 없다. 다만 《謝康樂集》에 ‘대숲 사이와 물가에 모란이 많네’(竹簡水際多牡丹)라는 언급이 있다. 成式이 隋朝의 《種植法》 70권을 찾아보니 牡丹을 말한 대목이 없으니 隋朝의 花藥 중에는 모란이 없음을 알겠다”¹⁸⁾고 했다. 이에서 말하는 前史란 단성식이 살고 있는 唐朝보다 앞선 시대를 말하며, 《謝康樂集》은 육조시대 劉宋 사람인 謝靈運(385~433)의 문집을 말한다. 나아가 지금은 사라져 버린 《種植法》은 《舊唐書》 經籍志에 의하면 “77권이며 諸葛穎 撰이다”고 했으니 段成式이 말하는 卷數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를 말함이 틀림없을 듯하다. 이로써 보면 前代 기록에 아주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唐朝에 들어와 비로소 牡丹이 본격적으로 감상되기 시작했다는 뜻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언제인가? 이와 관련해 《酉陽雜俎》 같은 편에는 이를 짐작할 만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開元 年間(713~741) 말에 裴士淹이 郎官이 되어 사신으로 幽州와 冀州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汾州의 衆香寺에 이르러 白牡丹 한 그루를 얻어 長安의 자기 집에다가 심었다. 天寶 年間(741~756)에 都下에서 기이한 감상 거리가 되었다. 당시 名公 한 분이 ‘배급사 집에서 모란을 보고’(裴給事宅看牡丹)라는 시를 지었다.¹⁹⁾

이로써 보면 백모란은 장안에 유입되어 유행한 시기와 그것이 들어온 통로를 짐작할 수가 있다. 북쪽에서 들어왔으며, 이를 계기로 해서 비로소 장안에는 모란이 유행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紅

18) 前史中無說處, 唯《謝康樂集》中言竹間水際多牡丹. 成式檢隋朝《種植法》七十卷中, 初不記說牡丹, 則知隋朝花藥中所無也.

19) 開元末, 裴士淹爲郎官, 奉使幽冀回, 至汾州衆香寺, 得白牡丹一窠, 植於長安私第. 天寶中, 爲都下奇賞. 當時名公有‘裴給事宅看牡丹’詩.

牡丹과 紫牡丹의 두 가지 모란은 至德 연간(756~757)에 馬僕射가 太原을 鎮守하다가 이를 장안성에 옮겨 심었다는 언급²⁰⁾도 단성식은 덧붙인다. 이로써 종합하면 모란은 黃河 이북, 특히 습기가 없는 건조한 사막성 기후가 자생지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이 長安으로 유입된 시기는 당 현종 말년 이후가 된다. 이는 唐代 사람인 李潛 撰으로 전하는 필기류 《松窗雜錄》에서도 재확인하니, 이에서 이르기를 “開元 연간에 禁中에서 처음으로 木芍藥을 중시하게 되니 지금의 牡丹이다. 《開元天寶》에서는 이 꽃을 木芍藥이라 불렀으며 本記에서는 禁中에서 牡丹花를 심었다고 했다. 紅·紫·淺紅·通白의 네그루를 구해다가 上께서 興慶池 東쪽 沉香亭 앞에다가 옮겨 심었다”²¹⁾고 했다. 모란을 木芍藥이라고도 했다는 지적은 南宋시대 鄭樵의 《通志》 卷 75에도 보이는데, 이에서 역시 정초는 모란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현했으며 唐代에 들어 비로소 유명해졌다고 언급한다.

그렇지만 모란 열풍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은 開元 말년, 혹은 天寶 시대에서 한참을 더 내려가야 했다. 단성식에 의하면 “元和 연간 초기까지만 해도 (모란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戎葵와 많고 적음을 다룬다”²²⁾고 한 말로 미루어 보아 元和 연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唐國史補》에서 말하는 시기와 조금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란 열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모란 재배 또한 성행하게 되니, 그 와중에 새로운 품종 개발도 있었던 듯, 《유양잡조》 같은 편에는 맘대로 모란 꽃잎을 조작해 길러낸 侍郎 韓愈의 먼 친척 일화도 수록했다.

20) 至德中，馬僕射鎮太原，又得紅紫二色者，移於城中。

21) 開元中，禁中初重木芍藥，即今牡丹也。《開元天寶》花呼木芍藥，本記云禁中爲牡丹花。得四本紅·紫·淺紅·通白者，上因移植於興慶池東沉香亭前。

22) 元和初猶少，今與戎葵角多少矣。

앞선 언급들을 보면 모란은 開元 이전에는 장안에 진출하지 못하고 황하 이북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황하 이남, 특히 장강 유역 모란 사정은 어떠했을까? 앞서 본 모란 시인들 중 徐凝의 작품에 ‘題開元寺牡丹’(《全唐詩》 卷474)이 있다. 그 첫 구절에서 당장 “이 꽃은 남쪽 지방에서는 심기 어려움을 알겠고”(此花南地知難種)라고 했으니, 이로써 보건대 모란은 황하 이남의 식생대, 특히 고온다습한 지역에는 맞지 않은 식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開元寺는 杭州 開元寺를 말한다.

비슷한 언급이 唐代 인물 范攄의 《雲溪友議》 卷中 ‘錢塘論’에서도 보인다. 이에 의하면 致仕한 尙書 白舍人, 즉, 백거이가 처음에 錢塘에 이르러 모란꽃을 찾게 했지만 오직 開元寺 승려인 惠澄이 京師 근처에서 얻어 뜰에다가 울타리를 단단히 쳐서 심은 모란을 발견했을 뿐, 다른 곳에서는 모란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 이 때가 바야흐로 봄기운이 한창이라 惠澄은 모란꽃 울타리 위에다가 油幕을 쳐서 기르게 되니 이때부터 모란은 東越, 즉, 지금의 浙東 지역에 두루 심게 되었다고 한다.²³⁾

이로써 보면 黃河 이남, 특히 長江 일대로 모란이 퍼져간 것은 백거이(772~846)가 尙書에서 물러나 항주로 간 때가 된다. 백거이는 51세 때인 長慶 2년 壬寅 10월에 杭州刺史로 현지에 부임했으므로²⁴⁾ 대략 820년대에 비로서 장강 유역에 모란이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23) 致仕尙書白舍人, 初到錢塘, 令訪牡丹花, 獨開元寺僧惠澄, 近於京師得此花栽, 始植於庭, 欄圈甚密, 他處未之有也. 時春景方深, 惠澄設油幕以覆其上, 牡丹自此東越分而種之也. 이에 해당하는 구절이 《태평광기》 권199에는 “白居易初震杭州刺史, 令訪牡丹花, 獨開元寺僧惠澄, 近於京師得之, 始植於庭, 欄門甚密, 他庭未之有也...”라고 인용됐다.

24)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6》 ‘附錄3 白居易年譜略’, 上海古籍出版社, 2003, 402쪽.

있다. 뿐만 아니라 蜀이나 嶺南 지방에서는 五代 무렵까지도 모란을 몰랐다고 한다.²⁵⁾

모란 재배의 확산과 관련한 이런 저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段成式이 《유양잡조》에서 인용한 육조 劉宋시대 謝靈運의 시 구절, 즉, ‘대숲 사이와 물가에 모란이 많네’(竹簡水際多牡丹)가 그것이다. 謝靈運은 주된 활동 무대가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의 南京을 중심으로 하는 長江 유역 일대다. 9세기 이후에나 겨우 강남에 등장하기 시작한 牡丹을 사령운이 500년 전에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謝靈運 시대에는 모란이 장강 유역에 있었다가 이후 어느 시기에 멸종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사령운이 말한 牡丹이 우리가 말하는 그 牡丹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거나,²⁶⁾ 그것이 아니라면 사령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일 가능성도 내치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애초에 모란은 황하를 건너 長安에 진출하기 전에는 그 주된 식생대가 고온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모란 열풍이 원화 연간 무렵에 일어난 일임을 부정할 다른 아닌 원화 연간 무렵의 지식인 劉禹錫(772~842)의 다음과 같은 언급도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재음미할 때가 되었다. 韋絢이라는 사람이 太子賓客을 역임한 劉禹錫의 말을 기록한 《劉賓客嘉話錄》에 보이는 한 구절이다.

세상에서는 모란꽃이 근래에 있게 됐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앞선

25) 이시다 미키노스케 지음, 이동철 박은희 옮김 《장안의 봄》, 이산, 2004, 378쪽.

26) 그런 점에서 그 모양의 相似함 때문에 혼동하곤 한 芍藥 등의 유사 식물 인지도 모른다. 사령운의 牡丹이 지금의 모란이 아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同學 정순일 선생의 지적에 따른다.

시대 문사들의 글에 모란을 노래한 시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公(유우석·인용자)이 일찍이 말하기를 “楊子華에게 모란을 그린 곳은 지극히 자세하다. 자화는 北齊 사람이니 이로써 모란꽃이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²⁷⁾

항간에서 하는 말이 모란꽃이 근래에 있게 되었다는 말은 元和 연간을 중심으로 하는 장안 일대의 모란 열풍을 말할 것이다. 유우석은 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모란 자체를 알기 시작한 것이 근래가 아니라 북제시대에 이미 양자화라는 사람이 모란꽃을 그린 게 있으므로 이런 통념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다. 단명한 왕조 北齊(550~577)는 북위가 분열한 한 쪽인 東魏를 대체해 鄴에 도읍을 정하기는 했지만, 지금의 산둥성은 물론이고 북쪽의 산서성 일대도 점유했으니, 이에 出仕한 楊子華가 모란을 보았을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劉禹錫이 본 것처럼 말하는 그의 牡丹 그림이 과연 모란인지 여부는 그 실물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단언이 심히 곤란하다. 나아가 楊子華가 모란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은 그 이전 기록에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劉禹錫 시대에 와서 등장하는 점도 수상쩍기만 하다. 여하튼 楊子華의 모란 그림은 돌출이라는 느낌을 준다.²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장안을 중심으로 볼 때 牡丹 재배가 시작된 시점은 당 현종 말년인 開元 말년, 天寶 연간이며, 그렇게 시작한 모란이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열풍’을 일으킨 것은 이보다 반세기 가량이 지난 9세기 초반 무렵임은 확실해졌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唐詩에서 모란이 소재 혹은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조사한 결

27) 世謂牡丹花近有，蓋以前朝文士集中無牡丹歌詩。公嘗言楊子華有畫牡丹處，極分明。子華北齊人，則知牡丹花亦久矣。

28) 楊子華의 행적은 唐代 인물인 張彥遠이撰한 《歷代名畫記》권8 참조. 이에서 張彥遠은 楊子華를 ‘中品上’으로 분류했다.

과와도 실로 일치한다. 《全唐詩》가 정리한 唐詩 4만8천여 수 중에서 ‘牡丹’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해 걸리는 시는 총 140편 가량이지만, 그 중에 開元 연간 이전으로 제작시기가 올라가는 작품은 단 한 수도 발견할 수 없다. 이랬던 모란이 詩興의 중심 소재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말할 것도 없이 元和 연간 무렵이다. 이 무렵은 차라리 狂風이라 불러야 할 모란의 열풍 증세가 나타나는 바로 그 시기다.

그렇다면 개원 연간 이전에 牡丹은 존재했는가? 모란 그 자체가 식물로서, 그것도 주로 황하 이북 고온건조한 지대에 자생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화의 상징으로서 시나 회화 등의 소재로 된 적은 아예 없거나, 있었다고 해도 지극히 제한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요컨대 개원 연간 이전 중국에는 모란이 없었다.

V. 백제, 고구려, 그리고 일본열도에도 없는 모란

백제는 660년 멸망했다. 8년 뒤에는 고구려 또한 그 뒤를 따라 종적을 감추고 만다. 한데 지금까지 명백히 백제 혹은 고구려 시대로 제작시기가 판정된 유물 중에 모란이 등장하는 유물은 단 한 점도 없다.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 한 점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현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하다. 모란이 백제, 고구려 문화권에서는 없었기 때문이다. 모란을 몰랐기 때문이다. 실제 모란이 자생했다 해도 그것을 어떤 문화상징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일본 열도 또한 사정이 마찬가지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

기까지 모란을 모티브로 한 유물은 아직 단 한 점도 보고되지 않았다. 문헌으로만 보면 모란이 등장하는 시기는 草藁가 長德 2年(996) 무렵에 공개된 세이 쇼나곤(清少納言)의 수필집 《마쿠라노소시(枕草子)》가 처음이라 한다.²⁹⁾ 하지만 그것이 등장하는 맥락을 보면 白居易의 시를 통한 간접 소개다. 이는 牡丹의 확산에 그것을 소재로 하는 唐詩의 영향이 클 것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데 이보다 앞서 牡丹이라는 말만 보면 天平 5년(734)에 조정에 진상된 《이즈모풍토기(出雲國風土記)》의 두 군데, 즉, 意宇郡(오우 노코오리)과 秋鹿郡(아िका 노 코오리)에서 각각 이 지방 山野에 자라는 초목으로 ‘牡丹’이 다른 초목과 더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牡丹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낸다.³⁰⁾ 다시 말해 牡丹이라는 말이 보인다 해서 그것이 바로 지금의 牡丹을 지칭하는지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은 예컨대 南朝 梁의 도사이며 의사인 陶弘景이 《神農本草經》을 해설한 《本草經集注》를 보건대 분명하다. 이곳에서 陶弘景은 牡丹을 草木下品에 배열하면서 이르기를 “一名 鹿韭라 하고, 一名 鼠姑라 하는데 巴郡의 山谷과 漢中에서 난다. 二月과 八月에 뿌리를 캐서 음지에서 말린다”³¹⁾고 했으니, 그 자생지가 황하 이북 건조지대와는 맞지 않는다. 나아가 같은 책에는 巴戟天이라는 같은 식물 약재를 같은 品類에 비열하면서 “그 형상이 牡丹과 닮았지만 (더) 가늘다”³²⁾고 했지만, 파극천은 그 생김새가 전연 지금의 모란과는 거리

29) wikipedia ‘ボタン (植物)’ 항목에 의하면 모란이라는 말은 ‘殿などのおわしまさで後’(143段)에 보인다고 한다. 관련 항목에 대한 번역은 김시덕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30) 이하 牡丹의 실체에 대한 언급은 일본에 유학 중인 同學 정순일 선생의 절대적인 지적과 조언을 바탕으로 했음을 밝힌다.

31) 一名鹿韭, 一名鼠姑, 生巴郡山谷及漢中, 二月·八月采根, 陰乾.

가 멀다. 이로써 보건대 開元 연간 이전, 주로 본초학서를 중심으로 牡丹이라는 말이 보인다 해서 그것이 바로 지금의 모란인가는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唐代 蘇敬 등 20여 인이 659년에 찬술한 본초학서인 《新修本草》 권9 ‘牡丹’에서는 《神農本草經》이 기술한 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謹案’이라는 말 아래에 “牡丹은 漢中에서 난다. 劍南에서 나는 것은 짝은 羊桃와 흡사하고 여름철에는 白花가 피며, 가을철에는 열매가 떨어진다. 뿌리는 芍藥과 흡사하며 肉은 白色, 皮는 丹色이다. 漢·劍南에 나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은 牡丹이라 하면서 百兩金이라고도 한다. 京下에서 吳牡丹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세속에서 쓰는 말은 이것과 다르니 별도로 臊氣가 있다”³³⁾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서 말하는 牡丹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란과는 다르다.

요컨대 牡丹이라는 말이 나온다 해서 덮어놓고 그것을 지금의 모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本草學書에 무수히 등장하는 모란은 그렇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특히 중국 문화권에서 모란의 역사를 논할 적에 항용 그 첫머리에 인용하는 두 자료, 즉, 《신농본초경》에서 보이는 ‘牡丹’³⁴⁾과 1972년 1972年 甘肅 武威 漢墓에서 출토된 東漢시대 이른바 ‘武威漢代醫簡’에서 관독한 ‘牡丹’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의 모란 始原을 구하는 작업은 그것이 등장하는 맥락이 本草學이라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³⁵⁾

32) 狀如牡丹而細.

33) 牡丹, 生漢中. 劍南所出者, 苗似羊桃, 夏生白花, 秋實凋, 根似芍藥, 肉白皮丹. 出漢·劍南, 土人謂之牡丹, 亦名百兩金, 京下謂之吳牡丹者, 是眞也. 今俗用者, 異於此, 別有臊氣也”

34) 牡丹: 一名鹿韭, 一名鼠姑. 味辛寒, 生山谷. 治寒熱中風, 瘕瘕瘕, 驚癇邪氣, 除癥堅瘀血留舍腸胃, 安五藏, 療癰瘡.

우리가 생각하는 牡丹이 일본 열도에 등장한 시기가 《이즈모 풍토기》가 출현한 때보다 훨씬 더 늦다는 방증 자료는 많다. 예컨대 《침초자》 이전 문헌에서 그 흔적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으니, 그 이전 六國史에는 전연 보이지 않는다. 4천536수에 달하는 시가집인 《萬葉集》 그 어느 작품에도 모란은 보이지 않으며, 奈良時代인 天平勝寶 3년(751)에 작성한 序文이 있는 현존 일본 최초의 한시집 《懷風藻》(116수 수록)에도 모란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해 키노 쓰라유키 등이 912~3년 무렵에 완성한 《古今和歌集》은 작가 122명이 남긴 와카 1천111수를 수록했지만 이 역시 그 어디에서도 모란을 언급하지 않는다. 《古今和歌集》에 수록된 와카를 보면 계절에 따라 시가를 분류하는가 하면, 소재에 따른 분류도 시도하니, 봄에 해당하는 항목에 수록된 와카 시편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꽃은 매화와 벚꽃이다. 이 외에도 각종 식물이 소재가 되지만 牡丹은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시까지만 해도 牡丹이 일본 사회에서 그 어떠한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들 문화권에서 모란 모티브가 어느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고고미술자료를 통한 선행 연구성과에서도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이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모란이 모티브로 보이는 유물은 唐代에 와서야 비로소 성행하기 시작하며,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와

35) 이에 대해서는 Kubo Teruyuki(久保輝幸), 'The Problem of Identifying Mudan and the Tree Peony in Early China', 《Asian Medicine》 5(1), 108~145쪽, 2009 참조. 이 글은 아래를 통해 원문을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3세기 초 張仲景 撰으로 전하는 《金匱要略》 곳곳에도 각종 처방에 牡丹이 보이지만 이 모란이 지금의 모란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http://booksandjournals.brillonline.com/docserver/1573420x/v5n1_s7.pdf?expires=1339522535&id=id&accname=guest&checksum=5802F7ABFF23F7A1CE531AA2EB A949F0

서야 등장한다.³⁶⁾

VI. 역사의 오발탄 ‘모란 외교’

“신라는 진평왕 43년(621)에 처음으로 당에 사신을 보낸 이후 同王代에 모두 8차례 遣唐使를 보냈다. 모란꽃 그림과 그 꽃씨는 이들 중 어느 견당사가 가지고 왔을 것이다.”³⁷⁾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譯註 三國史記》에서 역주자가 해당 항목에 붙인 설명이다. 이어 역주자³⁸⁾는 모란꽃[牡丹]에 대해서는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원산지는 중국이다. 이 꽃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國花였는데, 唐代 이후 중국 사람들에게 특히 애호되었다.”³⁹⁾고 부연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역주자는 “한편 모란의 異名이 ‘天香國色’인 점으로 보아 모란은 원래 향기가 없는 꽃은 아닌 듯하다.”⁴⁰⁾고도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지금껏 그 어느 누구도 진평왕, 혹은 선덕왕 시대에 중국 왕실에서 모란꽃 그림과 그 씨가 들어왔다는 기록 자체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물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의문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의심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였다.

그렇다면 진평왕 시대, 혹은 선덕왕 시대에 당에 파견된 견당사가

36) 이에 대해서는 논문 말미 참고문헌에 정리한 모란 관련 논문 참고.

37) 정구복외,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40쪽.

38) 이 역주본에서 신라본기는 권덕영이 맡았다.

39) 정구복외,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40쪽.

40) 정구복외,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41쪽.

모란꽃 그림과 그 꽃씨를 들여왔을까? 그리고 모란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國花”였는가?

이미 결론은 났다. 들어올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진평왕 혹은 선덕왕 시대에 중국에서는 모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란이 그 땅에 자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란이 그 그림이나 그 씨를 외교의 선물로써 제후국에 보낼 만큼 그런 자리를 모란이 결코 차지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즉 훔쳤듯이 모란이 문화의 상징으로 재발견되기는 빨라 봐야 당 현종 開元 말년, 天寶 연간이지만, 이것도 실은 빠른 편이어서 적어도 외국에 그 그림이나 꽃씨를 외국에 선물할 정도의 여건을 갖추려면 元和 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를 방증하는 증거로써 우리는 이와 관련되는 그 어떠한 언급도 중국 측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중국 기록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唐과 신라의 공식 외교 관계에서 그런 선물이 오갔다고 하는데 중국 측 기록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점을 방증할 수는 있다. 아울러 牡丹을 일러 “전통적인 중국의 國花”라는 말도 시대착오다. 牡丹이 그런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元和 연간 이후여야 한다.

덧붙이건대 이와 관련한 《삼국사기》 선덕왕 즉위년 조 기록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멀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의하면 唐에서 보내온 모란꽃 그림을 보면서 선덕공주가 아버지 진평왕에게 했다는 말 중에는 “무릇 여자에게 國色이 있으면 남자들이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기 마련”(女有國色, 男隨之, 花有香氣, 蜂蝶隨之故也)이라는 구절이 있다. 對句 관계를 고

려하면 女=花, 國色=香氣의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花는 말할 것도 없이 牡丹이다. 모란을 國色과 연동해 인식한 흔적이 드러나는 셈이다. 하지만 모란을 國色으로 간주하는 사고 관념이 결코 진평왕, 혹은 진덕왕 시대에 있을 수가 없다.

앞서 우리는 劉禹錫(772~842)의 ‘賞牡丹’이라는 시에서 “오직 모란만이 참으로 國色 있어”(唯有牡丹眞國色)라는 구절을 보았다. 國色은 말할 것도 없이 ‘傾國之色’의 줄임말이니, 劉禹錫이 모란을 국색에 비긴 것은 그 뒤에 바로 따른 구절이 “꽃필 무렵이면 서울이 술렁이네(開花時節動京城)”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개한 모란에 京城이 진동했으니 그야말로 나라를 기울일 만한 색깔인 셈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譯註 三國史記》는 아울러 “모란의 異名이 ‘天香國色’”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역사학자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시대착오를 범하고 말았다. 모란이 이런 이칭을 갖게 된 것은 元和 연간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200년 정도나 빠른 신라 진평왕, 선덕왕 시대에 모란이 이렇게 불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란이 ‘天香國色’이라 일컬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앞서 모란을 國色에 비긴 흔적은 劉禹錫에게도 보았지만 ‘天香國色’이라는 말 또한 劉禹錫이 활동하던 唐 文宗 大和~開成 연간(827~840)에 中書舍人 李正封이 지은 詩에서 비롯됐다. 唐代 사람인 李濬의 筆記인 《松窗雜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大和~開成 연간에 程修己라는 사람이 있어 그림을 잘 그려 황제를 배알할 기회가 생겼다. 修己가 처음에는 孝廉으로 천거되어 官籍에 편입된 까닭에 임금은 그를 그냥 환쟁이 부류로 만든 보지 않았다. 봄이 저물 무렵이 되어 內殿에서 牡丹花를 감상하다가 上이 자못 詩를 좋아하여 修己에게 묻기를 “지금 京邑에서 傳唱하는 牡丹花詩 중에서는 누구를 최고로 치오?”라고 하니, 修己가 대답하기를 “臣이 일찍이 듣

근대 公卿 사이에서 자주 中書舍人 李正封의 詩를 吟賞한다 하니, 그 시에 이르기를 ‘天香夜染衣, 國色朝酣酒’라고 했습니다”고 했다.⁴¹⁾

‘天香’은 모란꽃 향기가 천상에 내린 향기와 같음을 비유한 말이며, ‘國色’은 모란의 강렬한 색채가 너무나 황홀해 거기에 취하면 나라를 기울이게 될 정도라는 과장법이다. 이 시구에서 비롯되어 ‘國色天香’은 바로 모란 그 자체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발전했다. 요컨대 ‘天香夜染衣, 國色朝酣酒’⁴²⁾는 모란이 내뿜는 향기는 너무나 강렬해 밤이 되어서는 옷섶을 적시고, 나라를 기울일 만한 뛰어난 색깔은 아침에는 술이 얼큰히 오른 얼굴빛처럼 붉게 빛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떤 꽃을 國色天香에 비긴 시구는 李正封와 대략 활동시기가 겹치는 白居易에게도 발견된다. 즉, 그의 ‘山石榴花十二韻’(《全唐詩》 권447)에는 “이 때 國色을 만나니 어디에서 天香을 찾으리오(此時逢國色, 何處覓天香)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물론 제목에 보이는 ‘山石榴花’, 즉, 진달래를 말한 것이지만 어쨌든 國色天香, 혹은 天香國色은 白居易와 李正封 시대가 되어 모란과 같은 꽃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善德과 관련한 牡丹 운운이 시대착오라는 또 다른 근거는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세 가지 색깔의 모란에서도 재삼 확인한다. 이에 의하면 唐帝가 紅·紫·白의 3색 모란꽃 그림을 보내왔다 했거니와, 모란을 그 꽃 색깔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은 앞

41) 大和·開成中, 有程修己者, 以善畫得進謁. 修己始以孝廉召入籍, 故上不甚以畫者流視之. 會春暮內殿賞牡丹花, 上頗好詩, 因問修己曰: “今京邑傳唱牡丹花詩誰爲首出?” 修己對曰: “臣嘗聞公卿間多吟賞中書舍人李正封詩曰: ‘天香夜染衣, 國色朝酣酒.’”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五代~北宋 초기 인물인 錢易(968~1026)의 筆記 《南部新書》(甲)에도 보인다. 두 판본을 비교하면 후자가 다소간 혼란스럽다.

42) 판본에 따라 두 구절은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서 본 《酉陽雜俎》를 비롯한 中唐 후기 문헌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이 무렵 다른 문헌으로 《松窗雜錄》에는 개원 연간에 禁中에서 (꽃 색깔이) 紅·紫·淺紅·通白인 모란 네 그루를 얻어 興慶池 東쪽 沉香亭 앞에다가 옮겨 심었다는 내용⁴³⁾이 보인다. 네 가지 색이라 했지만 紅·紫·白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모란꽃 그림 색깔이다. 이런 (세 가지) 색깔에 따른 모란의 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진평왕, 선덕왕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다.

Ⅶ. 세 남자를 거느린 여왕

간단히 말하면 당 태종 이세민이 신라에 모란을 선물했다는 기록은 거짓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연 어느 누군가가 책상머리에 앉아 선덕의 예지력을 현창하고자 퍼뜩 안출한 생각이라고 안이하게 간주할 수는 없다. 모란에 덧씌운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한다.

모란꽃의 저 심연에 숨은 실체 접근을 위해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증언, 즉,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수이전》의 관련 기록을 새로이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모란은 성별로는 여성이다. 그것은 國色이라는 비유에서 단적으로 확인한다. 둘째, 그런 모란에 향기가 없어 벌과 나비가 없다는 말은 國色에 비유할 만한 여성에게 남자가 없다는 말이다. 이를 《삼국유사》에서는 唐帝가 “배필〔耦〕이 없음을 놀린 것”이라고 했다. 셋째, 그런 점에서 향기는 곧 결실이다. 향

43) 開元中, 禁中初重木芍藥, 卽今牡丹也. 《開元天寶》花呼木芍藥, 本記云 禁中爲牡丹花. 得四本紅·紫·淺紅·通白者, 上因移植於興慶池東沉香亭前.

기가 없다 함은 결실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곧 선덕왕이 후사를 두지 못했다는 은유일 수 있다. 넷째, 이와 관련해 唐帝가 보냈다는 ‘花子’ (《삼국사기》), 혹은 ‘實’ (《삼국유사》), 혹은 ‘牧丹子’ (《수이전》) 는 사람에 견주면 글자 그대로 후사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남자, 더욱 범위를 좁히면 精子다. 다섯째, 그런 모란 종자를 심어 꽃이 피었는데도 ‘無香’ 혹은 ‘不香’이라는 말은 남자를 통해(혹은 精子를 받아서) 후사를 얻으려 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요컨대 모란 이야기는 이와 같은 sexual connotation이 짙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가 있다. 《漢書》五行志 中之上에는 다음과 같은 ‘成帝時 歌謠’가 수록됐다.

邪徑敗良田	지름길 좋은 밭 망가뜨리듯
讒口亂善人	참언은 선한 사람 괴롭히네
桂樹華不實	계수꽃 피었지만 열매 없고
黃爵巢其顛	노란참새 꼭대기 둥지틀었네
故爲人所羨	옛날엔 사람들이 선망했지만
今爲人所憐	지금은 사람들이 동정하네

이에 대해서는 “계수나무(桂)는 赤色이니 漢家를 상징하며 꽃이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함은 繼嗣가 없음을 말한다. 王莽은 스스로 황색을 상징으로 삼았으니 黃爵이 그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다는 말이다”⁴⁴⁾는 설명이 붙어있다. 이는 결국 오행상극설에 따라 赤色을 내세운 漢 왕실이 黃色을 앞세운 왕망에게 멸망하리라는 징조로 해석한 셈이다. 한데 이 대목에서 모란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 계수나무가 꽃을 피우기는 했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말을 당시 前漢의 황제인 成帝가 後嗣를 두지 못한다는 복선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이다.

44) 桂, 赤色, 漢家象. 華不實, 無繼嗣也. 王莽自謂黃象, 黃爵巢其顛也.

이러한 발상은 모란씨를 심어 꽃이 피기는 했지만 향기가 없었다는 표현의 판박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 가지 색깔의 모란 씨를 심어 꽃을 피웠지만 향기가 없었다는 말은 무엇일까?⁴⁵⁾ 미리 고백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이를 해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근자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화랑세기》가 출현한 것이다. 필사본 형태로 1989년과 1995년에 각각 두 가지 종류가 필사본 형태로 급작스레 공개된 이 《화랑세기》를 둘러싸고 필사자인 南堂 朴昌和가 꾸며낸 이른바 僞書라는 견해와 신라인 金大問의 《화랑세기》를 필사한 것이라는 이른바 眞本論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데 眞僞 논쟁이 치열한 이 《화랑세기》에 어느 누구도 해명할 도리가 없던 모란씨 三升이 비밀을 풀 수도 있는 언급이 있는 것이다.⁴⁶⁾

그에 앞서 우리가 미리 확인할 사항이 있다. 《삼국사기》 권 제46(열전 제6)에 의하면 金大問은 본래 신라 貴門의 子弟로서 신라 聖德王 3년(704)에 漢山州都督이 되었다 했으니, 그의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한산주도독이 지금의 경기도지사 쯤에 해당하는 고위직에다 중책이라는 점에서 이후 그가 오래 살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중국 대륙의 長安에 모란이 유입되기 시작한 開元 말년, 혹은 天寶 연간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김대문은 모란이 문화의 상징으로 발견되기 이전을 살다간 인물이며, 어쩌면 모란은 생판 구경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가 지었

45) 이에 대해서는 줄져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2에서 이미 골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엔 그 근거와 배경 등을 더욱 보강하고자 한다.

46) 이하 이용하는 《화랑세기》 판본은 이종욱이 역주해한 《화랑세기》(소나무, 2000)다. 이후 이종욱은 그 개정판을 2005년 같은 출판사에서 《대역 화랑세기》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다는 《화랑세기》에 모란이 나오면 아니 된다. 나오면 그것은 후대의 가탁이거나 누군가가 지어낸 이른바 僞書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작금 출현한 《화랑세기》 필사본에 선덕여왕과 관련된 모란 이야기가 있는지를 접근해야 한다.

분석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존 《화랑세기》 필사본⁴⁷⁾ 그 어디에도 牡丹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선덕여왕과 모란 이야기를 연결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13世 風月主 龍春公 傳을 보면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을 여직 생산하지 못하는 선덕여왕을 둘러싼 ‘三嬙之制’라는 흥미로운 제도가 소개되고 있다.

(善德)공주가 즉위하자 (龍春)공을 지아버로 삼았지만 공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고자 했다. 群臣이 이에 삼서三嬙의 제도를 의논하여 欽飯公과 乙祭公을 보좌[副]토록 했다. 공은 본디 (아버지인-인용자) 金輪이 색에 빠져 폐위된 일을 슬퍼하여 성품이 색을 좋아하지 않아 왕에게 아첨할 생각이 없었기에 물러날 뜻이 더욱 굳어졌다. 善德은 이에 政事를 乙祭에게 맡기고 공에게 물러나 살기를 허락했다. (물러난) 공은 天明公主를 처로 삼고 (천명공주가 형인 龍樹에게서 낳은) 太宗(金春秋-인용자)을 아들로 삼았다.⁴⁸⁾

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진평왕이 죽자 왕위를 이은 선덕은 龍春을 지아버로 삼았지만 후사를 두지 못했다. 이에 群臣이 논의해서 ‘三嬙之制’라는 제도를 응용해 기존 지아버인 龍春 외에도 欽飯과 乙祭 두 사람으로 하여금 龍春을 보좌토록 했다. 요컨대 삼서지제는 같은 여

47) 이 필사본은 초대 魏花郎 이래 마지막 32世 信功에 이르는 역대 풍월주별 전기물이다.

48) 公主即位，以公爲夫，而公以無嗣自退。群臣乃議三嬙之制，公乃以天明公主爲妻，以太宗爲子。

자에게 지아비 세 명을 두어 아들을 생산토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⁴⁹⁾ 하지만 남자 세 명을 들이고도 선덕은 결국 아들을 낳지 못했다.

묻는다. 이 三嬙之制와 그 실패야말로 선덕여왕과 모란에 얽힌 이야기의 원형 아닌가? 특히 唐帝가 보내온 紅牡丹, 紫牡丹, 白牡丹의 삼색 모란씨 한 되씩, 모두 석 되[三升]을 심어⁵⁰⁾ 개화했지만, 향기가 없었다는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이야말로 선덕이 龍春과 歆飯과 乙祭라는 남자 세 명을 들이고도 끝내 아들을 두지 못했다는 그것과 일맥으로 상통하지 아니하는가?

그렇다면 왜 선덕은 아들을 두지 못했을까? 이야말로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가 애초에 不妊 여성일 가능성도 있고, 아울러 이미 즉위할 무렵에 可妊 연령을 지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의 즉위 직후 신라사람들이 선덕을 ‘皇祖聖姑’로 불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姑’라는 말과 연동할 적에 즉위 당시 선덕은 아마도 40대 이상을 훌쩍 지났을 것이다. 이는 그의 부친 진평왕이 신라사에서는 오직 60년을 재위했다는 창엽주 박혁거세를 제외하고는 장장 54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이나 王位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례 하나로써 우리는 《화랑세기》 필사본이 항간 일부의 지적처럼 남당 박창화라고 하는 뛰어난 역사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기존 문헌을 천재적으로 활용해 지어낸 위서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본다. 선덕여왕과 모란 이야

49) 三嬙之制를 이종욱은 그의 《대역 화랑세기》에서 “진평왕과 그 형제들이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 다음 代의 왕위 계승자를 얻기 위한 조치였다”(222쪽)고 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선덕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세 명의 사위를 두는 제도였다”(412쪽)고 설명했다.

50) 《삼국유사》에 이들 三色 모란의 씨를 각기 한 되씩 보냈다는 직접 기록은 없다. 하지만 전후맥락으로 보아 색깔별로 한 되씩 보냈음은 확실하다.

기는 《삼국사기》 선덕여왕본기는 물론이요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사절요가 인용한 수이전에 모두 전할 정도로 선덕여왕이라고 하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존 《화랑세기》 필사본 그 어디에도 이를 언급한 대목이 없다.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화랑세기》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맞는 말이다. 지극히 중요한 지적이다. 《화랑세기》는 제목으로 보면 화랑을 역임한 사람들을 차례로 정리한 인물 전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화랑세기》에 반드시 모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화랑세기》 필사본은 사정이 달라 비록 직접 모란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앞서 분석했듯이 이 이야기가 모란으로 가공되기 이전의 원자책임이 확실한 선덕여왕과 三嬪之制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묻는다. 정말로 《화랑세기》 필사본이 박창화가 탁상에서 지어낸 가짜 신라사라 한다면, 즉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란이라는 기존 문헌에서 주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애써 삼서지제를 들고 나왔겠는가?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모란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일 수가 없다. 이유는 모란을 모르는 시대를 살다간 김대문이 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 앞에 출현한 《화랑세기》 필사본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일 수 있는지 그 단적인 사례 하나를 건져냈다. 《화랑세기》가 지닌 이런 위력은 이 글 앞부분에서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 다시 말해 진평왕에게는 正妃에게서 낳은 공주가 선덕 뿐만 아니라 김춘추의 어머니인 天明이라는 딸이 한 명 더 있었음에도 왜 같은 성골인 천명, 혹은 천명의 자식인 김춘추가 선덕여왕의 죽음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를 풀

때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이 진평왕의 장녀라 했다. 하지만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역시나 天明이 선덕과 同父同母 자매로 나오기는 하지만, 天明이 언니다. 이를 통해서도 《화랑세기》 필사본이 《삼국사기》를 포함한 기존 문헌을 재가공해 그럴 듯한 이야기로 꾸민 신라사라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한다.

그렇다면 《화랑세기》 필사본이 김대문의 저작을 (얼마나 충실한가는 별개로) 베낀 것이라고 할 때, 진평왕의 죽음과 더불어 왜 왕위가 언니인 천명이 아니라 동생인 선덕에게로 갔는지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물론 언니 천명이 아버지 진평왕보다 먼저 죽었다면 의문은 간단히 해결되지만 《화랑세기》에는 이 문제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 자리서 이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골자만 추리면 이렇다. 천명은 龍春이라는 풍월주 출신자에게 반해 그와 같이 살고자 王宮을 떠나 바깥으로 나갔다. 이를 龍春公 傳에서는 ‘出宮’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출궁은 단순한 스캔들로 거치는 사건이 아니었다. 출궁과 더불어 天明은 신분이 族降됐다. 다시 말해 그 신분이 성골에서 한 단계 떨어져 진골이 된 것이다. 이른바 골품제로 표현하는 신라 신분제의 실상을 이처럼 생생히 묘사하는 자료는 없다.

어떻든 출궁과 더불어 신분이 族降됨으로써 천명은 왕위계승 자격이 박탈됐다. 왕위는 성골이 독점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⁵¹⁾ 한편 이렇게 출궁한 천명은 용춘과의 사이에서 춘추를 낳았다. 이런 춘추가 나중에 선덕과 진덕 두 여왕을 거쳐 마침내 성골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씨가 마름으로써 마침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화랑세기》 필사본을 진본으로 신뢰하건 말건, 지금

51) 이런 측면을 《화랑세기》 용춘공 전에서는 “骨品이란 왕위와 신위의 구별이다”(骨品者, 王位臣位之別也)라고 표현했다.

까지 어느 역사학자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진평왕 이래 김춘추에 이르는 왕위계승 과정을 명쾌히 설명하는 자료는 없다. 《화랑세기》가 지닌 위력, 그야말로 메가톤급 위력을 지닌 핵폭탄이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 《화랑세기》가 저룩한 三嬙之制가 후대 모란 이야기로 둔갑되었다고 할 때 첫째, 삼서지제가 모란 이야기로 둔갑한 시점은 언제냐, 둘째,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가 무척이나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해 우리는 그 정확한 시점을 꼽기는 힘들지만 그 대략은 추정할 수 있다. 모란 이야기가 《殊異傳》에서 보이며, 이것이 崔致遠 撰인지, 아니면 고려 초 朴寅亮 저술인지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이 있거니와 아무튼 신라 말~고려 초임은 확실하다. 이로 볼 때 삼서지제가 모란 이야기로 둔갑한 시점의 상한선은 《殊異傳》 편찬 무렵이다. 그렇다면 상한선은 어디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중국발 모란 열풍이 일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 元和 연간 무렵일 것이다. 대략 서기 800년 이후 무렵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변형 시점을 9~10세기 정도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즉, 왜 애초에는 삼서지제 이야기가 모란으로 둔갑되었냐 하는 의문이다. 이 역시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래도 여성은 一夫從事해야 한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중국식 禮制의 확산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도덕 가치에 의한다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남편을 세 명이나 동시에 둘 수는 없다. 이런 禮制의 신라사회 침투, 확산에 직면한 한반도의 이데올로그들은 이를 粉飾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고민이 三嬙之制를 모란으로 둔갑케 하는 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삼서지제가 부끄러워서 이를 숨기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타가 모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분식을 주도한 이데올로그들은 아무래도 신라사회에 대한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려 초기 인물이라기보다는 신

라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삼서지제가 모란씨로 둔갑한 하한선을 935년 신라 멸망 이전이라고 더욱 좁힐 수가 있다고 본다.

Ⅷ. 또 다른 역사의 오발탄 ‘花王戒’

지금까지 고찰을 통해 우리는 모란이 문화의 상징으로 재발견되기는 중국을 기준으로 아무리 빨리 잡아도 당 현종 개원 말년 이후이며, 더욱 범위를 좁히면 元和 연간 이후임을 알았다. 더구나 모란의 식생과 관련한 분석을 발판으로 그것이 애초에 자생한 곳은 황하 이북 고온건조한 지대이며, 한반도에서는 자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분석과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때 우리는 신라사와 관련해 심각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다. 설총이 지었다는 이른바 ‘花王戒’가 그것이다. 꽃에 빗대어 爲政者에게 무엇인가 교훈과 鑑戒를 주고자한 이 작품은 의인화 소설이라는 점에서 한국 한문학과 국문학계에서 그 濫觴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화왕계가 정말로 薛聰이 지었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요즘 일반에는 ‘花王戒’라는 제목 아래 통용되는 설총의 글은 《삼국사기》 권 제46(열전 제6) 그의 열전에 보이지만, 《東文選》에서는 권 제52 ‘奏議’ 편에 전재하면서 ‘諷王書’, 즉, 왕을 諷諫하는 글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두 가지 명명법 중에 ‘花王戒’는 花王이 鑑戒하는 주체가 되므로, 이는 전연 이 글의 本意와는 주객이 전도된다. 이 글은 花王의 신하가 花王에게 감계하는 글이므로 花王을 살리고자 한다면 ‘戒花王’ 혹은 ‘戒花王之書’ 정도로 표현해야 한다. 그에 견주

어 ‘諷王書’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적절히 꼬집어낸 명명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花王戒’라는 제목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다.

너무나 유명한 이 이야기 전반을 이곳에 전재하지는 않거니와, 설총 열전이 著錄한 ‘花王戒’는 꽃 중의 꽃, 모든 꽃의 왕이 ‘花王’이 갖은 교태와 치장으로 무장해 아침하는 佳人 ‘薔薇’와 베옷에 가죽 띠를 두르고 흰 머리에 지팡이를 짚은 丈夫 ‘白頭翁’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백두옹을 곁에 두고 의지하는 자기 신하로 간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설총은 이런 우화를 神文大王 시절 어느 해 ‘仲夏之月’에 ‘高明之室’에 왕과 같이 있으면 했다고 한다. 설총이 이런 우화를 든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신문왕 또한 아침을 물리치고 忠諫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화왕에게 총애를 다루는 두 꽃은 장미와 백두옹(할미꽃)으로 그 실체가 분명하다. 화왕 또한 구체적인 꽃 이름을 노출하지는 않지만 牡丹임이 명백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花王이 모란의 별칭이며, 나아가 ‘화왕계’에서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화왕의 묘사가 모란에 해당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신이 들건대 옛날에 화왕이 처음 오자 향기로운 꽃동산에 그것을 심고 비취색 장막[翠幕]으로 그것을 보호하니, 봄 내내 오염함을 발산하며 온갖 꽃을 뛰어넘어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 먼 곳을 가리지 않고 곱디고운 꽃 중에 다투어 달려와 화왕을 알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⁵²⁾

52) 臣聞昔花王之始來也，植之以香園，護之以翠幕。當三春而發艷，凌百花而獨出，於是自邇及遐，艷艷之靈，夭夭之英，無不奔走上謁。

장막을 쳐서 꽃을 보호한다는 말은 백거이의 시 ‘牡丹芳’의 구절, 다시 말해, “햇볕 쬐면 시들까 모두들 염려하니, 그리하여 장막 쳐 그늘 드리우네”(共愁日照芳難駐, 仍張帷幕垂陰涼)와 상통한다. 帷幕을 쳐서 그늘을 드리우는 까닭은 개화한 모란이 더디게 지게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온갖 꽃을 뛰어넘어 홀로 뛰어나다는 말도 모란을 형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예컨대 徐夔의 ‘牡丹花二首’ 중 제1首 첫 구절에 보이는 “만가지 꽃 중에 제1류”(萬萬花中第一流)라는 말이 바로 花王으로서의 모란을 유감없이 증언한다. 이에서 비롯되어 모란은 ‘(百)花王’이라는 별칭도 얻게 되니, 唐末 대표하는 시인 皮日休는 그의 《牡丹》에서 “온갖 꽃 다 진 뒤에야 비로소 향기를 뽐내 나니 아름다운 이름 불러 말하기를 백가지 꽃의 왕이라 하네”(落盡殘紅始吐芳, 佳名喚作百花王)라고 한 것이 그 보기다. 북송의 文豪 歐陽修는 錢思公의 말을 빌려 “사람이 이르기를 모란을 花王이라 한다”(人謂牡丹花王)고 했다.

하지만 花王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란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長安에 한창 모란 열풍이 몰아치던 그 시절을 풍미한 白居易는 ‘山石榴花十二韻’이라는 시에서 ‘山石榴花’, 즉, 진달래를 일컬어 百花王이라 불렀다.⁵³⁾

그럼에도 花王에 대한 여러 묘사를 볼 때 설충이 지었다는 寓話 ‘화왕계’의 花王이 모란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⁵⁴⁾ 한데 문제는 바로

53) 이 시 마지막 구절은 이렇다. “天闕에 심어도 좋지 않을까 하니 장차 玉皇께 바치고자 생각하노라. (그렇게 된다면 옥황께서) 靑鳥를 사신으로 뽑아 보내시어 백화의 왕으로 봉해주시리라”(恐合裁金闕, 思將獻玉皇, 好差靑鳥使, 封作百花王)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역주 《삼국사기》(4) 주석편(하)》(1997)는 花王에 대한 주석에서 “모란을 지칭한다. 《本草經》 牡丹에 보면 ‘여러 꽃

이에서 비롯한다. 《삼국사기》 그의 열전에 의하면 薛聰은 字가 聰智, 조부가 談捺 奈麻이고, 아버지가 그 유명한 승려 元曉다. 方言으로 九經을 읽었다 해서 “至今(《삼국사기》 편찬 당시-인용자)에도 배우는 자들을 그를 중지로 삼는다”고 했을 정도다. 元曉는 생몰년(617~686)이 밝혀져 있으므로, 그것이 불확실한 설총은 유복자가 아닌 이상 아버지 원효가 입적한 686년 이전에 태어나야 한다. 그가 언제 태어났건 중요한 것은 그가 모란을 의인화한 ‘화왕계’로써 감계한 대상이 神文王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성립할 수 없는가?

신라 제31대 신문왕은 재위 기간이 681~692년이다. 唐에 견주면 高宗 李治 재위기간(재위 649~683) 말기와 그에 이은 武則天 집권기간(683~705) 초중반기에 해당한다. 앞서 충분히 살폈듯이 이런 신문왕 시대에 모란은 그 어떤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지 못했다. 더구나 모란이 花王으로 등극한 것은 빨라 봐야 開元 말년 이후이며, 더욱 정확히 그렇게 대두한 시기는 牡丹 열풍이 장안을 몰아친 元和 연간 이후가 된다. 다시 말해 신문왕 재위 시대에 모란은 존재감이 전연(양보한다면 ‘거의’) 없는 존재였으며, 더구나 그런 까닭에 그것이 花王으로 일컬어질 수는 더더욱 없었다. 따라서 설총이 신문대왕에게 모란을 의인화한 ‘花王戒’를 왕에게 지어 받쳤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花王戒’는 설총 사후 모종의 목적에 따라 그에게 假託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임이 분명하다.

덧붙여 말하건대 중국 대륙에 모란 열풍이 몰아치고, 그 여파가 미치기 전까지 한반도에는 어찌면 모란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란이 관상용으로 長安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생 혹은 인공 재

중에 牡丹이 제일 아름답고 木芍藥이 다음 가기 때문에 牡丹을 花王이라고 하고 芍藥을 花相이라 한다’고 했다”(772쪽)고 했지만, 《本草經》은 혹 《本草綱目》이 아닌가 한다.

배된 곳이 주로 황하 이북 건조지대임을 고려한 추정이다. 다습한 한반도에는 역시 다습하기는 마찬가지인 長江 일대와 그 이남 지역 중국 대륙이 그러했듯이 모란은 외부 세계에서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 도입되기 전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설총은 모란을 몰랐을 것이다. 모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후대에 진짜 출현할 모란을 미리 알고서 그것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야기를 쓸 수는 없다.

【참고문헌】

- 김철수 역주, 《백거이의 新樂府 50수와 秦中吟 10수》, 백산출판사, 2007.
-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1.
- 이종욱, 《신라골품제연구》, 일조각, 1999.
- 이시다 미키노스케 지음, 이동철 박은희 옮김, 《장안의 봄》, 이산, 2004.
- 정구복외, 《譯註 三國史記3 주석판(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김태식, <삼국유사에서의 王曆의 위치와 파른본 삼국유사 王曆의 가치> 《신라사학보》 28, 2013.
- 김명숙, <한국 불상 광배의 양식 연구> 《이대사원》 16, 1979.
- 김수연, <고려 상감청자에 나타난 모란 문양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예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영주, <모란을 주제로 한 도자 표현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일다, <15세기 분청자 모란문 연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재임, <한중일 모란 문양의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설유경, <고려시대 과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유난희, <통일신라시대 조문 수막새에 대한 일고찰>, 울산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유혜영, <모란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유홍도, <통일신라시대 전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미희, <고려 정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 임선미, <일본 모란문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임영신, <통일신라시대 와당과 전에 나타난 보상화문 연구>, 동아대학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2.

주성희, <일본 정창원의 오녀배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ABSTRACT

Abyss of tree peony, Queen Seondeok and
sperm donors : In addition to verify
whether Seolchong(薛聰) was the author of
Hwawanggye(花王戒)

Kim, Tae-shik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mguk Sagi*”) and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amguk Yusa*”), the peony was imported from the Tang China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ing Jinpyeong era of Silla (in reign 579 to 632 A.D). The related literatures recorded that the Emperor Taizong of Tang had sent the peony seeds to King Jinpyeong with a painting of a peony. However, the daughter of King Jinpyeong (who later reigned as the 17th ruler of Silla), Princess Seondeok knew that the peony flower blossomed after being planted will have no scent, which turned out to be true. King Jinpyeong asked Seondeok how she knew that the flower would have no scent, to which she answered, “I knew there would be no scent as there were no butterflies in the peony painting”. This paper studied whether it was possible to send the peony seeds from China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ing Jinpyeong era and proves that it is not possible. The reason was, above all, when looking at Chinese history, it was only after 750 A.D that the peony became known to the Emperor of Tang

China and started to be cultivated centrally from the capital city. This was over 100 years after the King Jinpyeong era. In fact, even at its earliest, it can't have been before 730 A.D. After reviewing the records of peony related literatures in China, it was found that the peony had only just begun to be brought in from the northern desert continent of China. Moreover, it was, strictly speaking, after 800 A.D that a fanatical enthusiasm of peonies developed across China. Therefore, It was not possible for Tang China to send the peony seeds to Silla during the reign of King Jinpyeong. However, could we simply conclude that the documents showing that the seeds peony flowers that have no scent once blossomed, were sent to King Jinpyeong from the Emperor of Tang China as 'false' or 'wrong'? This paper will investigate further in order to bring light upon this point. As a result, it claims that it is just a metaphor that the hereditary literatures have put in to represent a political issue in the King Jinpyeong and the Queen Seondeok eras. The planted seeds sent from the Tang China which blossomed into three different coloured peonies but has no scent is a metaphor for the historical event where Queen Seondeok had no sons to be her successor. Works of literature that have been found recently cite that Queen Seondeok while in reign, had been with three men to produce her successor but failed to do so. Furthermore, we find out that the 'King of Flowers' cannot be a peony in the book *Hwawanggye* (Warning of the Flower King) by reviewing the cultural aspect of the matter. *Hwawanggye* is a fiction written by Seolchong during the King Shinmun era (in regin 681-692 A.D), personifies the peony flower, in other words, peony is the 'King of Flowers' (*Hwawang*). We argue that works of fiction like this (personifying peony flowers) cannot have be written in the King Shinmun era. This is due to, as previously found, the period

where the peony became the ‘King of Flowers’ was at least half a century past the King Shinmun was in reign.

Key words : Tree Peony, King Jinpyeong, Queen Seondeok, Emperor Taizong of Tang, sperm donor, Hwawanggye (Warning of the Flower King, 花王戒), Seolchong(薛聰)

논문 투고일 : 2014. 3. 30. 심사 완료일 : 2014. 4. 8. 게재 확정일 : 2014. 4. 15.